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22일(목)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당자	• 한국이민사박물관장 김상열 ☎440-4701 • 담당자 김윤정 ☎440-4707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이민사박물관 “남미의 한인들” 특별전 개최

- 4만리 밖, 가장 먼 곳 한인들의 이민이야기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분관)에서 남아메리카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조명하는 “남미의 한인들” 특별전을 개막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첫 공식이민지로써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전시의 사진, 책 등 총 100여점의 자료를 통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국가로의 이민사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조선에 처음 알려진 남미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최초의 이주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반공포로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미 이민의 시작을 알린 196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로의 기획이민의 과정과 농업정착에 실패 후 도시로의 이주과정을 사진과 문서 등을 통해 전시한다.

3부에서는 현지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을 다양한 사진과 자료로 전시하고 있다. 행상인 벤데(Vende)로 시작해 의류업을 통해 정착해가는 과정과 한인회의 사진, 한글학교의 건설모습 등 한인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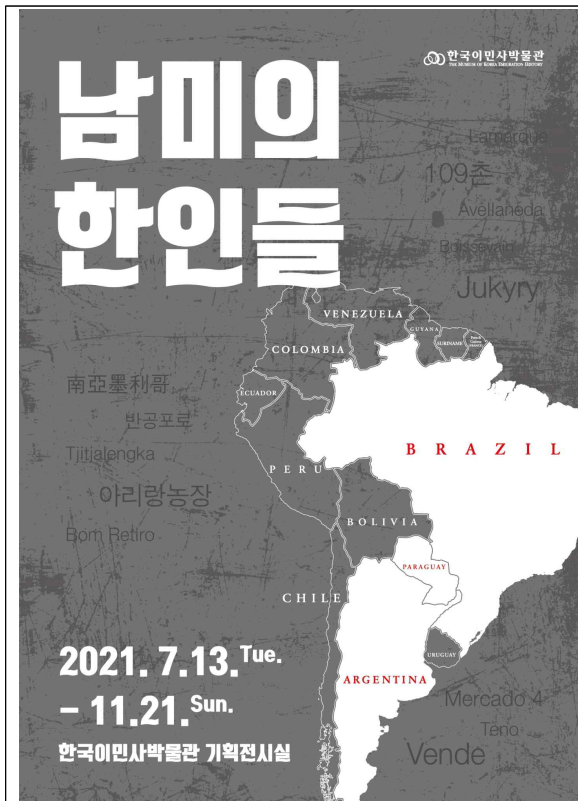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한인인구의 변천 도표와 재이민·귀환이민자의 이야기를 통해 남미의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 변화가 잦았던 한인사회의 모습을 그린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이 이주했지만, 동 시기 다른 지역 이민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던 남미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서 11월 21일(일)까지 진행되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기타 관련사항은 한국이민사박물관(☎032-440-4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관련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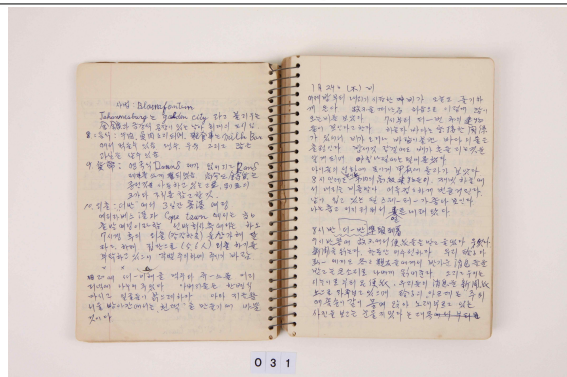
## <불임> 포스터 및 관련 사진 자료



[사진 1]  
〈특별전 포스터〉



[사진 2]  
〈결혼식 사진〉 (1964)  
반공포로 손천기와 농업이민자  
최정순의 결혼식 사진



[사진 3]  
〈백옥빈 일기〉 (1962~2004)  
브라질 이민과정과 정착생활을 적은  
백옥빈 여사의 일기장



[사진 4]  
 <아르헨티나 라마르게 농장의 한인들>  
 (1960년대)



[사진 5]  
 <파라과이 행상(벤데)의 뒷모습>